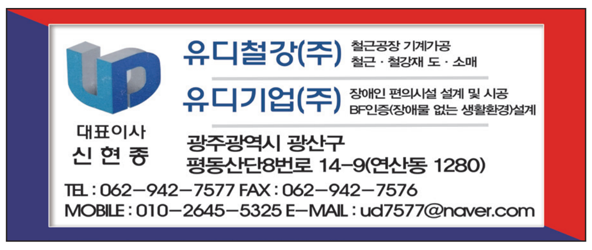
광전매일신문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조국혁신당 지방자치단체장 1호인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가 27일 담양을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지역 현안 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담양군 제공

담양-순창, 경마공원 유치 '맞손'… "사행-생태 역행" 반대론도

전남과 전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상생 프로젝트 눈길

호남 첫 사례, 접근성·인프라 우수… 사행성 등 반대 여론도

전남 담양군이 국내 5번째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순창군과 맞손을 잡았다.

전남과 전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간 상생 프로젝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행산업과 생태도시에 역행한다는 오랜 반대론 등은 해결과제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인근 순창군과 함께 호남 상호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인 '렛츠런파크' 유치전에 나섰다.

렛츠런파크는 서울, 제주, 부산·경남, 경북 영천에 각각 개설돼 있으며, 담양 순창이 유치하면 국내 5호이자 호남 최초 경마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담양만 놓고 보면 지난 2009년 제4경마장 유치전에 실패한 뒤 16년 만에 재도전이다.

담양 금성면과 순창 팔덕면 일원 390만㎡(118만 평) 규모로 담양이 188만㎡(57만평), 순창이 201만㎡(61만 평) 규모다. 담양에는 승마·체험 시설, 순창에는 경마·관리시설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전주·대전·대구 등 영·호남 주요 도시와 2시간 이내에 거리고 고속도로, 국도, KTX,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교통 접근성도 탁월하다. 관광 인프라도 뛰어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장수, 남원으로까지 이어지는 '말산업벨트'와의 연관성도 높다.

경마공원을 유치할 경우 6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효과 등이 기대된다.

21대 대선 민주당 지역공약에도 포함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협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순창군수는 민주당, 담양군수는 혁신당 소속이다.

혁신당 소속 전국 1호 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는 전날 담양을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경마공원 유치 지원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 순창과 별개로 김제시도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6-2공구)에 경마공원을 추진중에 있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2009년 유치전 당시 사행산업과 생태도시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론이 드셌던 점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유치전에 나서려던 경북 구미시가 사행성과 가정 파탄, 구미공단의 근로 분위기 저해 등을 앞세운 반대 여론을 존중해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고려해 볼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두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정치권의 협조가 이어진다면 호남 첫 경마공원 유치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광주시, 9월부터 상생카드 13% 특별할인

12월까지 4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 추진

총 6200억원 발행… 시민 혜택·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특별재난지역서 상생체크카드 사용하면 5% 추가 캐시백

광주시가 9월부터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에 들어간다.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확대된다. 광주상생카드로 월 50만원을 쓰면 최대 6만5000원을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광주시 '7+2 민생회복 지원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조치다.

광주시는 이번 특별할인에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할 계획으로, 할인규모가 역대 최대다. 할인기간 또한 4개월로 가장 길게 운영된다.

특히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전역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에서는 상생체크카드 이용시민에 한해 5%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피해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지원한다.

상생카드는 1인당 월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해 최대 6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불카드는 9월 충전 때 13%가 선할인되며, 체크카드는 충전시점과 관계없이 9월 사용금액의 13%가 다음달인 10월에 캐시백 된다.

기존 상생카드(체크 및 기명 선불)를 보유한 시민은 광주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구매 및 충전이 가능하다.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019년 최초 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발행액이 5조600억원을 기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광주시는 이번 할인율 대폭 상향을 통해 시민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골목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상생카드를 적극 활용해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보고회'를 개최해 상생카드 13% 할인율 확대 외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골목상권 지원단 운영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확대 발행 ▲온누리상품권 5% 환급(11~12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광춘 기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주 광산구·전남 여수시 특별지원 시작

28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직업훈련비 등 지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에 대한 특별지원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광산구와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와 여수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휴업과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피보험자 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80%, 대규모 기업은 60~70%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도 우선지원대상 130%, 1000인 미만 기업 80%, 1000인 이상 기업 70%씩 지원한다.

노동자들도 직업능력개발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이 이뤄진다.

광산구나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직업능력개발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80% 이하 노동자는 1인당 월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가능하다.

해당 지역 사업장 노동자는 1인당 25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 등 체불노동자는 1500만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지정 기간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기간 중 해당 지역 소재지 사업장에서 퇴사해 실업 상태인 노동자에 대해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을 면제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000원, 반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최대 16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부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 12개월째 '위축'

광주·전남 지역 제조업 기업 체감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소재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체감경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SBI)는 78.7로 전월에 비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다음달 전망 CBSI는 78.5로 전월보다 1.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SBI)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듯 지난해 8월(101.3) 이후 기준치(100)를 밑도는 상황이 1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제조업 CBSI는 86.1로 전월 대비 1.4p 상승했으며, 다음달 전망 CBSI도 92.1로 전월에 비해 1.1p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전남지역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6.1로 전월보다 2.1p 하락했으나 다음달 전망은 87.4로 전월 대비 2.2p 상승했다.

전국 비제조업 CBSI는 89.4로 전월에 비해 0.7p 상승했으며, 다음달 전망 CBSI는 91.5로 전월 대비 4.7p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비제조업체들도 내수 부진, 인력난·인건비 상승, 자금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승원 기자